



구시설관리공단, 복지관 찾아

‘코로나19’ 예방 방역봉사 실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은 ‘코로나19’의 지역관내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자율방재단을 구축하여 관내 복지단체를 찾아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일에는 용강동에 소재한 노인

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방문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자체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 봉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책임을 다하고자 취약계층이 이



용하는 복지단체에 대하여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기 이사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

단 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방역과 예방 행동수칙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